

(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알아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인과 달리)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.

국민연금은 소득의 9%다. 직장인들은 4.5%만 월급에서 떼고 나머지 4.5%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.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9%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내야해 부담이 적지 않다.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“자신의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면 그해 10월경부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온다.” 결국 1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.